

# 산에서 바라보는 희망의 녹색바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모범독림가 정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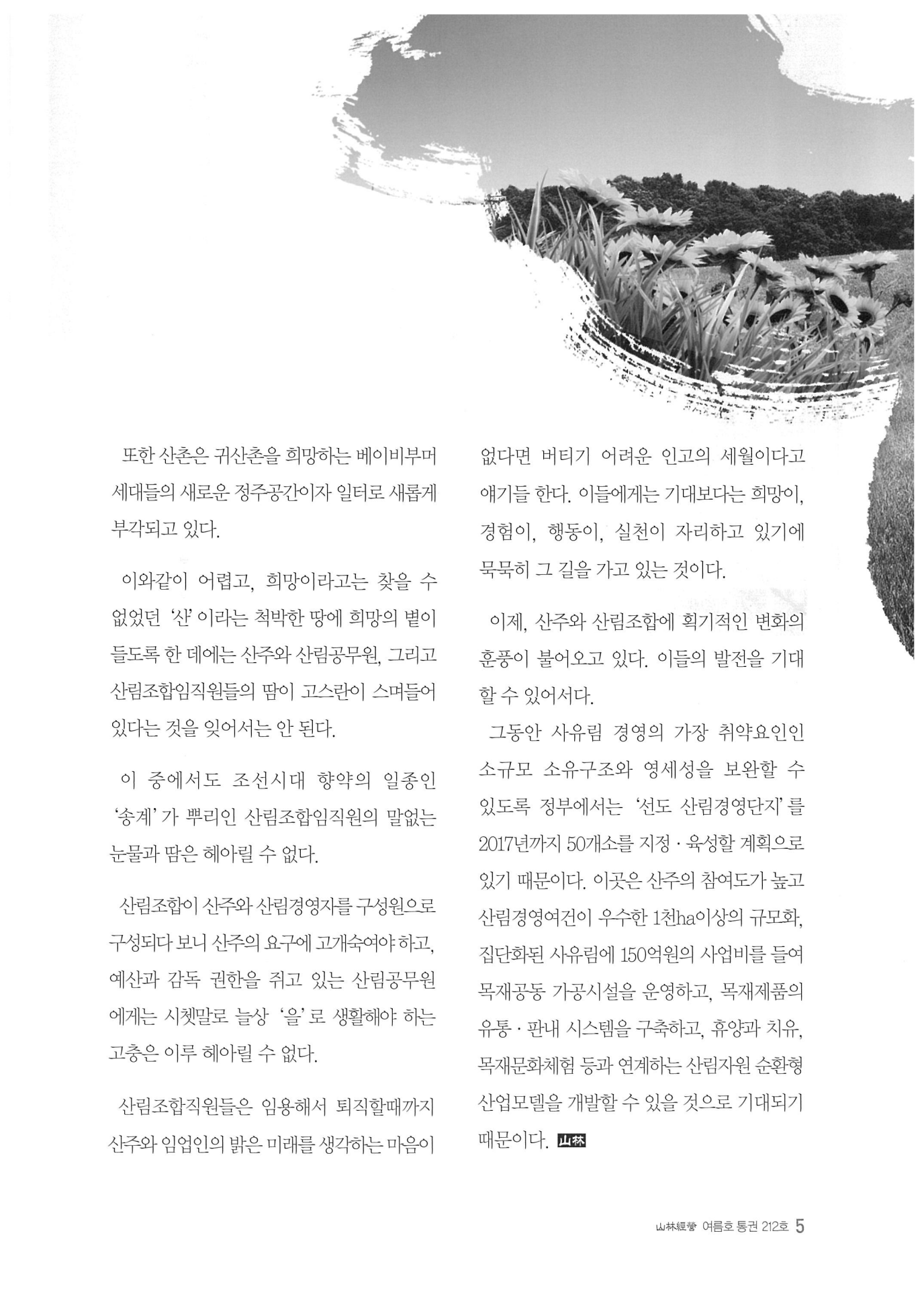
‘힘들다’로 표현되는 임업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힘차고 돈벌이도 되는 미래자원으로 가꾸어 갈수 있을까?

노동집약적인 대표적인 산업,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54%수준에 머무르는 임가소득이지만 오늘도 산에 희망을 걸고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임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70년대 농촌개발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지난 반세기 동안 ha당 10m<sup>3</sup>에서 126m<sup>3</sup>으로 12배 이상 증가 했다.

이러한 결과 목재를 비롯한 표고버섯과 산나물류 등 임산물 생산액은 5조 7000억원에 이르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목재 및 목질 바이오에너지 등의 수요증가로 목재산업은 2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과 등산, 트레킹 등 산림서비스 분야는 급성장 중에 있다.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이고, 등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숲이 국민행복 공간으로 활짝 열려 있다.



또한 산촌은 귀산촌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새로운 정주공간이자 일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이 어렵고,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산’이라는 척박한 땅에 희망의 별이 들도록 한 데에는 산주와 산림공무원, 그리고 산림조합임직원들의 땀이 고스란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가 뿌리인 산림조합임직원의 말없는 눈물과 땀은 헤아릴 수 없다.

산림조합이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구성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산주의 요구에 고개숙여야 하고, 예산과 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산림공무원에게는 시쳇말로 늘상 ‘을’로 생활해야 하는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산림조합직원들은 임용해서 퇴직할때까지 산주와 임업인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버티기 어려운 인고의 세월이라고 얘기들 한다. 이들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이, 경험이, 행동이, 실천이 자리하고 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산주와 산림조합에 획기적인 변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사유림 경영의 가장 취약요인인 소규모 소유구조와 영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2017년까지 50개소를 지정·육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산림경영여건이 우수한 1천ha이상의 규모화, 집단화된 사유림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재공동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목재제품의 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양과 치유, 목재문화체험 등과 연계하는 산림자원 순환형 산업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산림**